

‘수처작주 입처개진’ 의 각오로...



▲ 노재영 상임이사

1971.2 농협대학 졸업
 1971.2~2006.1 농협중앙회 마산지부(신용담당)
 농협중앙회 부산공판장 관리과장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경제담당)
 농협중앙회 본점 부장
 2006.2~2007.11 농협자산관리(주) 전무이사
 2007.12 한국양계농협 상임이사

한 국양계농협(조합장 오정길)은 지난해 11월 30일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면서 2008년은 ‘내실경영확립의 해’로 자립역량을 갖춘 양계농협 구현을 목표로 세웠다. 이날 농협중앙회 출신 노재영 상임이사가 선출되면서 앞으로 양계농협의 사업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농협의 다방면 업무 경험 바탕

경남 창녕 출신인 노재영 상임이사는 군 조합장을 지낸 부친의 영향으로 고양시에 위치한 농협대학에 진학했다. 당시 농협대학에서는 제 7회 졸업생부터 중견양성사업 일환으로 농업분야에 뜻이 있는 학생을 모집하면서 노재영 상임이사도 진학에 같은 뜻을 가졌다.

졸업 후 1971년 2월 농협중앙회 마산지부에 입사해 신용 및 기획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1978년 창원지부 상무와 1980년 부산공판장에서 3년간 관리과장으로 지낸 경험이 있다. 차후 경남지역본부장으로 경제담당을 책임하면서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자금부장을 맡는 등 노 상임이사는 신용, 경제, 지도, 일반분야까지 35년간 다방면의 업무를 맡아왔다.

지난 2005년부터 2년간 농협자산관리(주)에서 전문이사로도 활동하면서 두루 경력을 쌓아왔고, 최근 농협대학 부학장과 총동창회장을 역임하면서 국내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손실을 경험삼아 변화를 꿈꾼다

한국양계농협은 지난해의 경우 신용사업에서 흑자가 발생한 반면, 경제사업에서 나타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2008년도 사업방향으로 핵심조합원 육성 등 다양한 판매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손실의 원인은 대부분 대형유통업체에 미끼 상품이나 낮은 난가로 손해가 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사된 난가에서 상차반비를 제한 금액이 조합원에게 책정되고, 유통판매처에서 그 이하의 가격이 매겨진다면 조합에서 차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전한다. 양계농협은 수탁업체가 아니기에 난가로 인한 손해를 조합원이 아닌, 조합이 떠안는 결과를 낸 것이다.

이런 문제점 돌출에 따라 올해에는 변화 있는 양계농협을 꿈꾸고 있다.

생산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뒷받침 제공

현재 양계농협 회원수는 약 1,230여명으로 광주, 영천, 목포, 영주의 유통센터에 하루 200만개의 계란이 집하되면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마트로 납품되고 있다.

올해 사업계획으로 40,569백만원, 구매사업 23,374백만원, 가공산업 5,477백만원, 공제사업 4,200백만원을 편성했다.

한편, 생산성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양계농협은 지난해 호흡기약을 무상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는 생산지도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수의관 리용역비 약 5천3백만원, 사양관리용역비 약 4천만원, 육계조합원지도사업 3천만원, 축산종합컨설팅 1천5백만원 등 총 1억4천3백만원의 예산을 세워

조합원들의 생산활동에 뒷받침 역할을 해줄 것이라 전했다. 또한 방역지원비 3천만원, 조합원 독감 예방지원비 1천만원 등 방역진료비 4천만원을 계획하는 등 농가 환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계산물 소비촉진이 최종 목표

35년 반평생 농협에 몸 담아온 노 상무이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임되면서 사실상 양계를 비롯한 축산분야는 처음이다. 한국양계농협에 들어와서 보니, 식탁에 계란하나가 올라오기까지 생산부터 세척, 포장, 유통의 전 과정의 흐름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콜레스테롤 식품이라는 잘못된 오해를 밝히고, '60g의 완전식품 계란'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소비홍보활동으로 국내 소비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양계협회와 농협에서는 산란계자조금카드를 만들기 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카드 사용액의 일정금액을 적립해 그 금액을 모아 시식행사 등 소비촉진 활동을 위한 자금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양계농협에서도 백여명이 넘는 임직원이 자조금 카드를 만들었고, 노 상임이사 역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재직 당시 카드발급업무도 책임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회원이외에 고객에게 자조금카드를 권장하면서 소비홍보활동에 동참할 계획을 전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은 노 상무이사가 항상 마음에 두는 말이다. '곳에 따라 어디에 가든지 주인이 되어서 선자리 그대로가 참된 삶이 된다'는 각오로 지금까지 농협에 몸을 담은 것을 토대로 이제는 조합원에게 봉사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양계농협의 위상을 높여겠다는 말을 남겼다. (정리 | 장성영 기자)